

참고 자료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

www.unesco.org/culture/ich/index.php?pg=00006, 최종 접속일 2013년 9월

무형유산 보호 과제 태평양 지역 현황을 중심으로

다카하시 아카쓰키

유네스코아피아사무소 문화담당관

초록

이 글은 태평양 지역의 역사를 개괄하고 태평양예술축제(Festival of Pacific Arts), 공동체 기반 지식재산권, 접근과 이익 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등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역내 문화 협력 활동을 소개한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현황 및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를 제시한다. 중간 평가에서는 국가 및 지역 차원의 활동과 여러 유관 기관과의 협력 활동을 중점 다룬다. 이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세 분야로 나누어 제시한다.

- 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
- 무형유산 정책과 전략

이 글은 현장 프로젝트와 연구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분야를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태평양 군소도서개발국(SIDS)들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 및 협약 이행 증진에 발판이 될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소개한다.

서론

태평양 지역은 지구 표면의 약 30%를 차지하며, 1000여 개의 섬과 환초로 이루어져 있다. 니어 오세아니아(Near Oceania) 또는 솔로몬 제도 서쪽에 위치한 호주 대륙은 5만 년 전부터 호주 원주민의 터전이던 반면에 리모트 오세아니아(Remote Oceania) 또는 솔로몬 제도 동쪽의 태평양 군도는 약 3500년 전부터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정착하여 뿌리를 내렸다. 뉴질랜드에서는 서기 1250~1300년 쿡 제도에서 이주해 온 폴리네시아인들이 정착하면서 마오리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주 역사는 전통 항해술이 태평양의 주요 무형유산 가운데 하나임을 방증한다.

1600년대 이후 제임스 쿡(James Cook) 선장을 위시하여 유럽의 많은 탐험가가 태평양 제도를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은 기독교 유입, 식민화, 양차 세계 대전 기간 외세의 점령, 화폐 경제로의 점진 진입 등 일대 격변을 겪게 된다. 오늘날에도 일부 도서국은 유럽 또는 북미의 해외 영토로 남아 있다. 태평양 지역의 탈식민화 과정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태평양 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문화와 유산이 공존하는 축복의 땅이다. 특히 살아 있는 유산인 무형유산은 단연 으뜸이다. 역내 원주민 공동체는 태평양 유산의 전승에 앞장서며 무형유산 보호에서 주역을 담당하고 있다.

태평양예술축제(FOPA)는 무형유산 보호에서 선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은 지역 원주민 예술의 부흥과 태평양 제도 및 영토의 재통합이라는 야심 찬 비전을 세우고 이 프로젝트를 수립했다.¹⁾ FOPA는 태평양공동체사무국(SPC)의 자문 기관인 태평양예술문화협회의회(CPA)의 주도 아래 태평양의 여러 섬과 영토에서 4년마다 개최되고 있다.²⁾ 2012년 7월 솔로몬 제도에서 열린 제11회 FOPA는 개최 40주년을 기념하여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선보였다. 2000여 명의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태평양 전통 음악, 무용 등의 공연은 물론 다양한 예술문화의 향연이 펼쳐졌다.

유네스코 태평양 사무소는 1984년 사모아의 아피아에 설립되었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태평양 지역 사무소는 문화(1985), 커뮤니케이션(1990), 과학(1991) 등 활동 분야를 점차 넓혀 갔다.³⁾ 유엔의 '세계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 카렌 스티븐슨: 40주년 기념 태평양예술축제(SPC, 2012)
 2) 피지(1972), 파푸아뉴기니(1980), 프랑스령 폴리네시아(1985), 호주(1988), 쿡 제도(1992), 사모아(1996), 뉴칼레도니아(2000), 팔라우(2004), 미국령 사모아(2008)
 3) 교육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한 태평양 사무는 소관 분야를 넓혀 문화(1985), 커뮤니케이션(1990), 과학(1991) 분야도 담당하고 있다.

(1989~1998)'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문화유산과 인종 다양성의 공감 확대를 위해 '바카 모아나: 오션 로드(Vaka Moana: the Ocean Roads)'라는 장기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했다.

2002년 누메아 회의에서 '전통 지식의 보호를 위한 지역 프레임워크 또는 모델 법'이 채택된 이후 태평양 도서국들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지원 아래 공동체 기반 지식재산권(IPR) 관련 기준 마련에 박차를 가해 왔다. 비공식 부문이 공식 부문에 점차 통합되고 시민사회의 기반이 탄탄해지면서 전통 지식과 문화 표현물을 바탕으로 제작된 제품의 보호를 위해 지역 차원의 IPR 제도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에는 개발 협력국의 원조 아래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을 바탕으로 한 접근과 이익 공유(ABS) 역량 구축 워크숍이 개최되고 있으며, 무형유산 보호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보호 성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되면서 태평양 지역은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문화 정책과 전략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계획, 관련 사업 및 활동을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2007년 이후 태평양 지역은 유네스코의 후원 아래 무형유산 보호에 관한 두 차례의 지역 회의와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12차례의 국가 회의를 개최했다. 아래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보호협약 당사국은 7개국에 이른다.

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문화 관련 협약 비준 현황

	헤이그 협약 (1954)	헤이그 협약 의정서 (1999)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 협약 (1970)	세계유산 협약 (1972)	수중문화 유산 협약 (2001)	무형유산 협약 (2003)	문화다양성 협약 (2005)
호주	1984		1989	1974			2010
쿡 제도				2009			
피지				1990		2010	
키리바시				2000			
마셜 제도				2002			
미크로네시아				2002		2013	

	헤이그 협약 (1954)	헤이그 협약 의정서 (1999)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방지 협약 (1970)	세계유산 협약 (1972)	수종문화 유산 협약 (2001)	무형유산 협약 (2003)	문화다양성 협약 (2005)
나우루						2013	
뉴질랜드	2008		2007	1984			2007
니우에				2001			
팔라우				2002			
파푸아뉴기니				1997		2011	
사모아				2001		2008	
솔로몬 제도				1992			
통가				2004			
투발루						2010	
바누아투				2002		2010	
합 계	2	0	2	14	0	7	2

가장 최근에 협약을 비준한 태평양 지역 국가는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공화국과 나우루다.

마이크로네시아는 서태평양 해역에 펼쳐진 4개의 주(야프, 추크, 폰페이, 코스라에)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 3월 마이크로네시아의 4개 주 가운데 가장 무형유산이 풍부한 야프 주에서 첫 번째 무형유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야프 주의 거대한 돌 엽전(stone disk)은 유·무형 유산의 조화를 보여 주는 마이크로네시아의 대표 유산이다. 과거 야프 원주민들은 팔라우로 건너가 엽전 제작에 쓸 돌을 채집한 뒤 카누로 운반해 왔다. 돌 엽전은 특별한 날에 교환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전 전통에 따르면 산전수전을 겪으며 여러 곳을 거쳐 당도한 돌 엽전의 가치가 가장 높았다. 필롱 협의회(본 섬)와 타몰 협의회(외곽 섬)라는 두 개의 전통 지도자 협의회 대표들도 워크숍에 참여했다.

또 다른 협약 당사국인 나우루는 면적 20제곱킬로미터, 인구 9000명의 소규모 도서국이다. 나우루는 군함새잡이(Frigate Bird Catching)라는 독특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2011년 회의에서는 한 참가자가 회의실에 군함새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태평양의 각 섬은 저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지만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을 바탕으로 공동체 삶의 활력과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필자는

2010년 1월 유네스코 아피아 사무소에서 근무한 이래 14개 도서국 가운데 12개국을 방문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 각국을 방문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어느 곳엘 가든 유네스코와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대한 관심과 지지는 매우 뜨거웠다.

바누아투의 모래 그림과 통가의 전통 춤인 라칼라카(Lakalaka)는 무형유산보호협약에 따라 세계의 인정을 받은 태평양 지역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유산이다. 이 밖에 태평양 지역의 여러 유산 종목이 대표목록 등재 신청을 앞두고 있다.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태평양 도서 국가들의 문화 부문은 규모나 영향 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화 관련 정책은 교육부 내지 내무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태평양 도서 국가에서는 문화 담당 관리가 소수에 불과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도 제한돼 있다. 따라서 태평양 지역은 무형유산 보호 역량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2012년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와 공동으로 설립한 신탁기금으로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발족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파푸아뉴기니와 사모아가 프로그램 지원 대상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아이카와 노리코 일본 문화유산부 자문관과 앤서니 파락 연구관의 조력에 힘입어 몇 차례 워크숍이 개최되었다.⁴⁾

태평양 지역에 국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3부분 또는 '전통 부문'과 관련된 이 지역의 특수성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 사모아에서 열린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워크숍 기간에 마련된 솔로솔로 마을(Solosolo Village) 방문 행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잘 보여 준다.

솔로솔로 마을은 사모아의 대표 공예품인 돛자리를 생산한다. 간략히 배경 설명을 하면 사모아 사람들은 전통으로 돛자리를 귀중품으로 간주해 왔다. 판다누스 잎으로 짠 돛자리는 결혼, 장례, 토지 소유권 부여 등 특별한 날에 교환된다. 마을 간 돛자리 교환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를 주관하는 대표 연사는 유려한 말솜씨로 대중을 향해 연설을 시작한다. 마을 지도자들은 교환된 돛자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돛자리 교환은 가족과 마을, 나아가 사모아인 전체를 통합하는 의미를 지닌다. 돛자리 교환 의식으로 형성된 전통 사회 네트워크는 국경을 초월하여 해외 동포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사모아의 대표 무형유산인 돛자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문화체제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4) 파푸아뉴기니는 무형유산보호협약 이행 워크숍(포트모르즈비, 2012년 5월) 및 무형유산 목록화 워크숍(고로카, 2012년 10월)을 개최했다. 사모아는 무형유산 비준 워크숍(아피아, 2012년 2월) 및 이행 워크숍(아피아, 2013년 2월)을 개최했으며, 2013년 10월 사바이 섬에서 무형유산 목록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솔로솔로 마을 방문 행사는 전통 관습에 따라 아바(ava) 마시기, 족장들(matais)의 연설 및 인사 교환, 정부 관료들의 현안 발표, 예물 교환 의식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전통 관습에 따른 의전 행사가 끝난 뒤에야 방문자들은 마을 여성협의회 및 돛자리를 실제로 짠 여성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공동체 관계 수립 및 발전의 바탕이 된 이러한 의전을 생략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래 표는 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관련 워크숍 개최 현황을 보여 준다.

태평양 지역 역량 구축 워크숍 개최 현황

	인식 고취	비준	이행	목록화	등재 신청
호주					
쿡 제도	2010				
피지	2009				
키리바시	2011				
마셜 제도	2011				
미크로네시아			2013(야프)		
나우루	2011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2010				
파푸아뉴기니	2009		2012	2012	
사모아	2010	2012	2013	2013	
솔로몬 제도	2010				
통가	2009				
투발루					
바누아투	2008				
합계	11	1	3	2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는 2010년 피지 회의를 시작으로 통가(2011), 쿡 제도(2012), 바누아투(2013)에서 정보 및 네트워킹 연례 지역 회의를 개최해 왔다. 각 회의는 무형유산 정보 시스템, 무형유산 가시성 및 출판물 등 특정 주제를 중점 논의했다.

중국에 설립된 카테고리 2 기구인 아태무형문화유산 국제훈련센터(CRIHAP) 역시 베이징(2012)과 청두(2013)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역량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특히 청두 워크숍 참가자들은 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2008년 쓰촨 대지진을 겪은 창족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계에서 인정된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사후 재해 관리 단계에서 창족의 무형유산 보호 및 복원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다.

2013년 2월에는 태평양유산허브(PHH)가 태평양 지역 정부 간 대학인 사우스퍼시픽대학교(USP)에 설립되었다. PHH는 비전을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태평양 제도의 문화와 유산을 복원, 번영, 육성, 보호한다'로 세운 태평양 지역 자체 협력 기구다. PHH는 설립 이후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네트워크 형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⁵⁾, USP의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회의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의 성과는 박수를 받기에 충분하다. 2013년 6월 바누아투 문화센터는 무형유산보호협약 1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사흘 간 진행된 행사는 강연, 모래 그림 시연, 다양한 바누아투 공동체의 전통 문화 공연을 선보였다. 이러한 축하 행사와 더불어 아서 버너드 디콘(Arthur Bernard Deacon)의 기록물(MS 90-98)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등재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다. 이 기록물은 디콘이 1926년 말레쿨라를 비롯한 뉴헤브리데스(현재의 바누아투)의 여러 섬을 방문했을 때 남긴 것으로서 기하학 드로잉, 도해, 평면도, 모래 그림과 관련된 지도 등 여러 유형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영국 왕립인류학협회가 소장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 향후 과제는?

상기 제시한 성과를 바탕으로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향후 과제는 무엇인가? 세 분야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다.

5) www.facebook.com/pacificheritagehub

무형유산과 공동체 회복

태평양 지역은 사이클론, 지진, 화산 등 광범위한 자연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은 특별 관리 체계, 인식, 실행 방식을 마련하는 등 피해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자연 재해의 대표 사례로는 2012년 12월 사모아에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낳은 사이클론 에반(Evan)을 들 수 있다. 적어도 다섯 명이 사망했고, 가옥 피해 또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주택 재건이 필요한 가구가 600여 가구(약 4200명)에 달했다. 총 피해액은 2011년 사모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8%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는 사모아를 강타한 사이클론 에반에 관해 재난 후 수요 평가(UN/WB Post-disaster Needs Assessment)를 실시했다.⁶⁾ 문화 부문의 평가는 파갈로아-우오파토 보호 지역의 완전성과 진정성 훼손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이 지역은 열대림으로 유명하며, 풍부한 구전 전통과 수공예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흥미롭게도 방문 평가에서 서양식 가옥은 강풍에 지붕이 날아간 반면에 사모아의 전통 가옥(fale)은 바람을 견뎌 내며 최소한의 손상만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아의 문화는 6개월 간 펼쳐진 재건 활동에 크게 기여했다. 마을 협의회는 국제 사회와 정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보건 및 교육 등 주요 공동체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했다. 공동체 주도 서비스는 재난 발생 후 관련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큰 역할을 수행했다. 오랜 전통의 대가족 제도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고, 해외의 사모아 공동체 역시 자금과 물품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문화 활동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2013년 3월에 열린 연례 돛자리 축제와 6월 독립기념일에 열린 전통 노젓기 대회가 대표하는 사례다. 7월 무렵에는 아피아 항구에 유람선 운행이 재개되면서 관광객의 발길이 다시 이어졌다.

사이클론 에반에 관한 재난 후 수요 평가 보고서는 문화유산의 훼손을 직업 차원의 문제로 다룬 반면에 환경, 주택, 관광 분야의 피해와 손실은 여러 장에 걸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는 문화 부문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즉 문화유산은 기존의 국민계정 체계에서 재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6) www.pacificdisaster.net/pdnadmin/data/original/WSM_PDNA_2013_TC_Evan.pdf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

향후 태평양 지역의 무형유산 보호에서 고려해야 할 두 번째 분야는 무형유산과 공동체의 삶의 질(wellbeing)이다. 유엔 총회는 ‘행복: 발전으로의 통합 접근’이라는 결의안(65/309)으로 행복은 인간의 기본 목표이자 보편된 열망이며, GDP는 본질상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GNH)은 더욱 포괄되고, 공평하며,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아시아의 가치를 담아 발전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널리 알려져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멜라네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삶의 질 대안 지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2012년 말바투마우리 지도자 협의회(Malvatumauri National Council of Chiefs)는 바누아투 통치층의 지원을 받아 삶의 질 측정 방식으로 멜라네시아의 가치를 반영하는 변수들에 관한 예비 연구를 수행했다. 멜라네시아(바누아투,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는 화폐 교환이 아닌 자급자족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지역의 하나다. 바누아투의 경우 국민의 약 80%가 대가족 기반의 촌락 공동체 구성원이다. 그들은 농업과 어업으로 식량 자원을 확보하며, 다양한 전통 의식으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강화한다.⁷⁾ 바누아투 예비 조사 보고서(2012)는 자원 접근성, 문화 관행, 공동체 활력이라는 세 가지 영역을 공동체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⁸⁾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무형유산이 세 영역과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분석한다. 무형유산 관점에서 볼 때 파푸아뉴기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속해서 모니터링과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무형유산 정책과 전략

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별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제2차 문화부 장관 회담(호니아라, 2012)에서 채택된 태평양 지역 문화 전략(2010~2015)은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이행을 강조한다.⁹⁾ 태평양 지역의 독특한 관리 체제(족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 관리 체제와 민주주의의 결합)를

7) 알프 레게바누, “공동체 회복의 원천으로서 바누아의 전통 경제”, 멜라네시아의 관례에 따른 토지 소유 제도를 옹호하며(AID/WATCH, 2010)

8) 멜라네시아 삶의 질 대안 지표: 바누아투 예비 조사 보고서(VNSO, 2012)

9) www.spc.int/hdp/index.php?option=com_docman&task=cat_view&gid=184&Itemid=44

고려하여 공동체의 관행과 정부 주도 프로그램 및 법제도의 상호 강화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프라 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태평양 국가들은 무형유산 목록의 유지와 관리는 물론 교육 및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박물관, 멀티미디어센터 등 관련 시설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태평양 지역의 토착 연구원들과 연구소의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태평양 지역은 해외 인류학자 및 민족음악학자들의 오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무형유산 전송 공동체 및 보유자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유산보호협약 및 목록화 프로젝트는 태평양 지역이 토착 연구원과 연구소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네트워킹과 정보 축적은 태평양 무형유산 보호에서 필수 요건이다. 전통 공동체의 지도자와 마을 협의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 및 전통 시스템을 포괄하고 그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무형유산 보호의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향후 계획

태평양 지역은 공공, 민간, 전통의 세 영역에 속하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무형유산 보호 활동 참여 확대 및 인식 고취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줄 행사가 다채롭게 개최될 예정이다.

먼저 제5회 멜라네시아 예술문화축제(MAF)가 2014년 7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릴 예정이다. MAF는 1995년 멜라네시아 각국의 전통 및 현대 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멜라네시아 선봉대 그룹(MSG)¹⁰⁾이 조직한 행사다.¹¹⁾ 이 축제는 멜라네시아 국립예술문화위원회가 주최하고 파푸아뉴기니 국립문화위원회가 주관한다.

또한 2014년 8월과 9월 2개월에 걸쳐 유엔 군소도서개발국(SIDS) 국제회의가 사모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베이도스(1994)와 모리셔스(2005) 회의에 이어 세 번째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군소 도서 개발국뿐만 아니라 유엔 회원국 대표들도 참가하여 군소 도서 개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유네스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SPC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실무 그룹이 태평양 지역의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예

10) MSG는 바누아투, 피지, 솔로몬 제도, 파푸아뉴기니, 뉴칼레도니아의 카나카 민족 사회자유주의 전선(FLNKS)이 참여하고 있다.

11) MAF는 솔로몬 제도(1998), 피지(2006), 뉴칼레도니아(2010)에서 개최되었다.

비 보고서를 마련했다.¹²⁾ 유네스코는 2013년 7월 9일 피지의 나디에서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¹³⁾

원탁회의 결과 보고서는 국제 개발 파트너십과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4년 SIDS 국제회의가 향후 태평양 군소 도서 개발국들이 무형유산 보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12) www.forumsec.org/pages.cfm/documents/briefs-sustainable-development-working-group/

13) 문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원탁회의 최종 보고서와 포스트-2015 아젠다(유네스코, 2013년 8월)